

동양제철화학, 세계 화학기업 “도약”

2009년까지 폴리실리콘 1만톤 추가 투자 ... 공급과잉 전환 유념해야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태양광발전 관련기업으로 도약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2월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제철화학은 전날보다 1.01% 오른 30만원에 장을 마감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양제철화학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12월12일 기업 설명회를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양제철화학은 폴리실리콘 투자계획만을 밝혔을 뿐 시험생산의 성공 여부와 앞으로 투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이 고유가에 따른 세계적인 대체에너지 붐으로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동양제철화학의 침묵 태도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동양제철화학의 주가가 11월 초 36만원대에서 11월 말 18만원대까지 폭락한 데에도 침묵이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12일 동양제철화학은 “순도 99.99999% 이상의 폴리실리콘 생산에 성공했고 기존 5000톤 양산 추진에 이어 2009년까지 1만톤 추가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 양산이 추진되면 동양제철화학은 미국의 Hemlock과 MEMC, 노르웨이의 REC, 독일의 Waco, 일본의 Tokuyama와 더불어 세계 6대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삼성증권의 송준덕 애널리스트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해 진입이 쉽지 않은 폴리실리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동양제철화학은 기존 화학 부문에 이어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대우증권의 이용주 애널리스트는 “동양제철화학은 폴리실리콘 사업부문 이외에도 인천에서 추진하는 47만평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계 폴리실리콘 제조기업들이 공격적인 설비 확장에 나서고 있어 2010년 무렵에는 일시적인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3>